

21세기에 다시 읽는 이순신 1

영웅 중의 영웅, 위인 중의 위인

이순신이 걸어야 했던 험난하고 유별난 역정때문에 이순신의 위대성은 전술적 공훈, 고난의 극복, 숭고한 인격의 완성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봄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국사람이면 너나없이 충무공 이순신을 나라를 건진 한국제일의 위인으로 꼽고 있다. 거북선이라는 획기적인 신무기를 창제하여 임진 7년 전쟁기간 23해전 수 십회의 전투를 모조리 이기는 전승기록을 세웠을 뿐 아니라 명량해전에서는 원군의 칠천량 참패후 겨우 남은 13척의 초라한 판옥 선단으로 열 배도 넘는 133척의 일본 선단을 맞아 31척을 격파하고 왜장 마다시를 쏘아 죽여 물리침으로써 일본 수군의 서해 북진 기도를 완전히 좌절 시켰는데 이때 우리 수군의 13척 배는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재하는 기적 같은 완승을 거두니 이 10대 1의 명량대첩과 무패 전승 기록은 세계해전사에 영원히 깨지 못할 불가사의의 대승전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외국의 시각은 어떠할까. 임진왜란 7년 기간 이순신의 전략은 초기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의 수색 섬멸 작전으로 시작하여 본격대결인 한산전양해전의 유인포위격파, 명량물목의 결사저지, 끝내기 노량대해전의 추격화공섬멸작전으로 변환을 거듭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한산대회전 참패 후 일본 수군은 우리 수군이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싸움에 응해오지 않는 것이 이순신의 고민이었다. 그 원인은 임진왜란의 원흉인 도요도미 히데요시(풍신수길)가 궁여지책으로 “ 이순신 함대를 만나거든 싸우지 말고 차라리 해안으로 피하라” 라는 피전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니 이때 이미 풍신수길은 우리의 영웅 이순신에게 사실상 손을 들었던 것이다. 당시 경상도 해안을 따라서는 일본 육군이 요새를 구축하고 일본 수군을 엄호하고 있어 우리 수군의 접근이 어려워 이순신은 수륙합동 작전을 건의 했으나 명군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아 3년 8개월 동안 소강 상태 속에 한산통제영을 지키기만 할 수밖에 없었으니 공의 안타까움이 오죽했으랴.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조선역(朝鮮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차 출정 때는 총대장 규키 요시다카(구기가룡)을 포함하는 9명의 수군장수 휘하에 총 9,450명이 참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해전의 전개에 대한 총괄적인 기록은 없고 종군 승려나 문신의 개인 관전 기록이 있을 뿐인데 이나마 자기네들의 패전을 타당화 하기 위하여 이순신 수군의 군세를 5배, 10배로 과장해 놓아 믿을 것이 못되지만 그들에게 이순신 함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던가를 짐작케 한다.

마지막 노량해전이 끝난 후 명나라 제독 진린은 이순신의 죽음을 듣고 배위에서 세 번이나 놀라 넘어졌다고 하니 공의 지혜와 용기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던가를 짐작 할 수 있다. 뒤에 그는 이순신을 일러 “ 하늘을 날줄삼고 땅을 씨줄삼아 천하를 다스릴 재주와 무너지는 나라를 구해낸 공로가 있다.” 고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선조 임금에게 건넬바 있다.

또 근세에 와서는 1905년 현해탄에서 당시 세계최강이라던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격파하여 일약 노일전쟁의 영웅이 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도고 헤이하치로 (동경평팔랑)는 열화 같은 일본 국민의 환영연에서 쏟아지는 찬사에 대하여 “ 나를 영국의 명제독 넬슨에 비유하는 것은 무관 하겠으나 조선의 이순신이 있는 한 세계 제일 운운하는 것은 실로 송구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순신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한바 있다.

또 근세 영국의 해군제독 발라드도 “ 이세상에 넬슨 보다 위대한 제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있다면 패배를 모르는 동양의 가장 위대한 제독 이순신 일 것이다.” 라고 역시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 비교 평가로는 명장 이순신의 위대함을 절반도 그려내지 못하니 그것은 이순신만이 겪고 이겨야 했던 또 다른 적, 엄청난 시련과 역경 때문이다. 넬슨이나 도고 헤이하치로는 물론, 이순신 자신이 그의 난중일기에서 그렇게 사모하고 부러워했던 고대 중국 삼국시대의 전설적 전략가 제갈량이나 당나라 구국의 명장 광자의도 온 나라의 힘을 기울인 총력지원과 제왕의 절대적 신임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영화로움 속에서 이룩한

승리일 뿐 인류역사상 어느 누가 이순신처럼 나라의 지원은 고사하고 임금과 조정의 시기 질투 모함 고문 죽음의 협박 속에서 나라를 건진 이가 있단 말인가.

임금과 조정이 서울 한양을 버리고 평양을 거쳐 땅끝 의주까지 피해가니 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 이순신은 스스로 군사를 모병하고 군량을 거두며 무기와 병선을 만들고 군사들의 추위막음 옷까지 걱정하는 위에 정유재란 때는 상전 같은 명나라 군사를 잘 먹이고 달래야 하는 부담까지 떠맡아야 했으니 이와 같이 기막힌 전쟁을 수행한 장수는 고금에 다시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항상 적은 군사로 때로는 다섯 배 열 배가 넘는 적을 오직 불퇴전의 용기와 신출귀몰한 작전으로 7년이라는 기나긴 전쟁기간동안 단 한번의 실수도 없이 깡그리 이긴 전쟁 영웅은 오직 이순신 한 사람 뿐이니 이순신 그는 영웅중의 영웅이요 위인중의 위인인 것이다.



三尺誓天 山河動色 一揮掃蕩 血染山河

석자 장검을 들어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물이 떠는 듯 하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21세기에 다시 읽는 이순신 2

이순신의 또 다른 적, 고난과 시련

이순신을 가장 괴롭힌 사람은 어이없게도 바로 용렬한 임금 선조였다. 선조임금은 임란 발발 전에도 의심과 시기가 많아 어느 특정인이나 당과의 득세를 견제하기 위하여 당과 싸움을 조장하기까지 하였으며 자신의 자식 광해군 마저 시기 질투 의심하여 폭군의 길로 내몰았으니 성격 파탄자인 셈이다. 선조 자신은 한양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평양과 의주로 피난을 가니 온 백성의 원망을 받아 체면이 말이 아닌데 반하여 이순신은 남해안을 굳게 지켜 왜군의 서진을 차단함으로써 호남지방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온전히 보전하여 백성들의 절대적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니 의심 많은 선조 임금은 이순신을 시기 경계하고 죽여 없앨 생각까지 하였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음은 서인세력과 원균의 괴롭힘이다.

이순신 자신은 당색과 무관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추천한 영의정 유성룡이 동인계라는 이유때문에 서인들의 끈질긴 견제를 받게 되었다.

1590년 7월 46세때 정읍현감에서 고사리진첨절제사로 승진 발령되었으나 대간들의 반대로 취소되고 다시 8월에는 만포진첨절제사로 승진되었으나 역시 반대를 받아 취소되었다. 다음해 1591년 2월, 진도군수로 발령되었으나 취임도 하기 전에 다시 가리포진첨절제사로 고쳐 발령되고 다시 취임도 하기 전에 드디어 전라좌수사로 특진되니 이때가 바로 임란 발발 1년전으로 이순신이 드디어 구국의 역정에 등단한 것이며 꼭 1년의 전쟁준비 기간이 주어진 셈이다.

이와 같이 한 달 새 두 번이나 승진 반대탄핵을 받고, 한 달에 네 번이나 고쳐 발령하였음은 당시 인사의 난맥상과 함께 긴박했던 조선조정의 뒤늦은 전쟁대비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특기 할 것은 당시 일본 통신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의 왜침 가능성에 대한 엇갈린 주장 끝에 일단 “없다”로 공론을 모았으나 여러 가지 불길한 징후가 있어 “그래도 일단 대비 해두자”는 취지하에 선조 임금이 현직 직위에 관계없이 믿을만한 장수를 특별 발탁하는

불차특용(不次特用)을 명했으니 실로 아슬아슬한 다행이라 하겠다.

원균의 시기와 모함은 험악하고 민족의 불행으로 이어졌다. 원균은 이순신보다 나이가 다섯 살 위로 군대 선배이었는데 이순신이 연이은 승전과 왜 공로로 삼도수군 통제사에 오르자 그 밑에 있게 된 원균은 불만과 질투로 사사건건 이순신을 시기하며 그를 죽음과 백의종군길로 몰아간다.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소서행장)는 1597년 정유재란초에,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는 눈엣가시 이순신을 조선의 당파싸움을 이용해 제거하고자 일본인 이중간첩 요시라를 경상우병사로 있던 서인계열의 김응서에게 보내 자기의 정적이며 경쟁상대인 가토 기요마사(가등청정)가 바다를 건너오니 이 절호의 기회에 이순신을 부산 앞바다로 내보내면 그 목을 베어올 수 있다는 위장 선심 정보를 흘리고 김응서는 권율 도원수를 거쳐 이를 다시 형인 조정의 김응남, 이산해, 윤두수 등 서인계 대신들에게 제보하여 이에 깜박 속아 넘어간 이들은 다시 선조 임금을 움직여 급기야 권율을 통해 1월 21일 이순신에게 출전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끊임없는 정보수집과 전황파악으로 남해 일대의 정황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던 이순신은 “ 이는 분명 거짓정보이며 적의 속임수” 라고 판단하고 출전을 거부하고 왕명에 불복한다. 뒷날 한일 전사자료를 비교 조사해 보니 가등청정은 이순신이 출전명령을 받은 21일보다 팔구일 전인 12, 13일 경에 이미 장문포, 서생포에 도착해 있었음이 밝혀지니 꼭 싸우면 이길 싸움, 절대 싸우면 안될 싸움, 죽어도 싸워야 할 싸움을 명확히 구분해 나아가던 신념의 지장 이순신에게 이 출전 명령은 두번째 ‘ 절대 싸우면 안될 싸움’ 에 해당하는 것이며 뒷날의 필사 즉생 명량해전은 ‘ 죽어도 싸워야 할 싸움’ 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탄핵과 재기의 기회만 노리고 있던 서인 세력과 임금과 원균은 절호(?)의 기회를 만난 듯 손발을 맞추어 이순신을 통제사에서 해임구속하고 죽이려 까지 하였으나 저 유명한 관중추부사 정탁의 간곡한 친구차(구명 탄원서)에 힘입어 겨우 목숨을 부지 백의종군길에 오르니 이렇게 기막힌 사정이 어디에 또 있을까.

이와 같이 조선조정을 통째로 농락한 일본첩자 요시라에게 선조 임금은 80량의 상금을 내린 데 반해 죽음으로 명량대첩을 이룩한 이순신 수군에 내린 상금은 겨우 20량 이었으니 선조 임금의 망령됨을 알만하다.

왜란 발발 당시 조선수군의 수영별 관옥전선 보유 척수를 비교해보면,

원균의	경상우수영	73척
박홍의	경상좌수영	24척
이억기의	전라우수영	54척
이순신의	전라좌수영	24척
정걸의	충청수영	45척

으로 원균은 이순신의 3배가 되는 전력과 조선수군의 최 요충 중핵수영인 경상우수영을 맡고 있었음에도 유성룡의 임란기록인 <징비록>에 의하면 일본군의 형세가 대 단하다는 말만 듣고 지레 겁이나 대소전선 100여척을 스스로 바다에 가라 앉히고 만 여명 병사는 해산 시킨 뒤 육지로 도망가려 할 때 그 수하 장수 이운룡의 질타를 받고 마지못해 이순신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경상 좌수영의 박홍도 더 일찍 같은 모습으로 자해하고 도주했으니 이 두 경상수사들의 너무 이른 포기가 역사의 뼈아픈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다. 그 이유는 조선 수군의 막강한 관옥전선과 화포의 위력으로 초기 항전을 감행했다라면 뒤가 불안한 일본 육군이 것처럼 파죽지세로 북상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균은 이순신을 포함하여 빼앗은 한산 통제영에서 술과 여자로 방탕을 일삼다가 급기야 칠천량해전에서 이순신이 5년동안 피땀 흘려 육성한 조선수군을 전멸 시키고 자기자신도 아들 원사옹과 함께 배에서 내려 육지로 도망치다가 비둔한 몸을 이기지 못해 추격해온 왜군에게 칼맞아 죽었는데도 전란 후 선조임금은 이순신과 똑같은 공신 반열인 선무일등훈에 봉했으니 선조의 망령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앞서 조선 5개수영의 관옥선 척수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위약한 이순신의 좌수영이 조선 수군의 주력이 되어 나라를 구했음은 그 시사 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

이순신에게는 말 못할 어려움이 하나 더 있었으니 당시 이순신 자신 함경도 권관과

조산보만호를 하다가 어느날 수군인 발포만호와 전라좌수사가 되었듯이 당시 조선의 군제에서는 수군과 육군의 구분 없이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 당시 신분상 천하고 무지한 뱃사람들의 참여가 많을 수 밖에 없었던 수군은 이를테면 말썽꾸러기 병사나 끝발 없는 장수들의 좌천지역이었으니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맨 밑바닥 민초들을 묶어 불패의 구국강군으로 길러낸 공의 고뇌를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의금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일까, 아니면 사천해전에서 조총 맞은 어깨의 상처 때문일까, 난중일기에 몸이 아파 괴롭다고 기록된 날 수만도 무려 180회가 넘어 일년에 30일쯤은 아파서 고생하는 병약한 몸이었다고 볼 수 있으니 놀랍고 뜻밖인 가운데 공의 또 다른 고통을 비로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이순신이 싸워 이겨야 할 적은 어디에도 있었고 어디에서도 그를 괴롭혔다.

한산통제영에서 의금부로 잡혀가는 이순신
(아산 현충사 십경도)

21세기에 다시 읽는 이순신 3

이순신의 행동 양식은 화랑 5계의 완성된 모습

이순신이 자신의 행적, 생각, 느낌을 친히 기록한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누구나 공의 선명한 행동양식을 보게 된다. 이것이 곧 화랑 5계의 완성된 표본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라의 사상가인 원광법사(542-640)가 진흥왕대에 설정한 국민지도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화랑 5계는 알려진 대로 충, 효, 용, 신, 인으로 요약되며 신라 국가운영의 중추적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이상적인 행동규범이요 궁극적인 인격수련의 도달 목표였다. 풀이하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싸움에 나아가 용감하고, 친구를 신의로 대하며,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유교, 불교와 토종의 선교를 아우르는 유불선통합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계는 왕조의 흥망과는 관계없이 면면히 이어져 오다가 천년의 세월을 거쳐 이순신에게서 완성된 표본을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순신은 불교의 퇴조와 유교의 흥성으로 당대 조선선비의 새로운 덕목인 인, 의, 예, 지, 신의 5덕을 완성하고도 한발 더 나아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바탕이라 할 수 있는 애민평등을 이미 그때 실행하였고 오늘날의 산업경제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시하는 기획력, 곧 일을 꾸미는 능력인 지모(智謀)가 뛰어났으며, 고통을 스스로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극기와 초인적인 부지런함을 고루 갖추었으니 공은 바로 우리민족의 인격적 완성이며 이상인 것이다.

동시대인 인조임금의 승지였던 최유해는 이순신을 기려서 쓴 행장에서 공의 인물됨을 다음과 같이 찬탄했다.

“ 공은 엄정하고 진중하여 위풍이 있는 한편 남을 사랑하고 선비에게 겸손하며, 은혜와 신의가 분명하고 식견과 도량이 깊으며 기쁨과 노여움을 잘 나타내지 않았다. 일찍이 하는 말이 대장부 세상에 나서 쓰이면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농사짓고 말아도 또한 죽는 것이니 권세 있는 자에게 아첨하여 뜯 영화를 탐내는 것은 나의 부끄러워하는 바라....밤마다 군사들을 휴식시키고 자신은 스스로 화살을 다듬기도 하였으며 적선이 눈앞에 닥쳐오면 자기도 활을 당기어 사부(활 쏘는 병사)와 함께 쏘는 것이었다” 고 했고 또 택당 이식은 그의 시장(죽은 사람의 공적을 나라에 품하는 글)에 “ 몸을 세우는 절개와 국난에 죽는 충성과 또 행군하고 용병하는 묘리며 복잡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혜는 백년에 한명 나는 인물로는 넘어설 수 없었다” 고 썼다.

오늘에 이르러 보니 「백년에 한 명」은 「천년에 한 명」으로 고쳐 써야 하게끔 되었다.

충은 이순신에게 곧 나라이며 백성이며 공(公)을 뜻하는 가장 중요한 대의였다. 그러므로 이 충이 효와 상충될 때 그자신 지극한 효자이면서도 지체 없이 효를 유보하고 공을 택했다. 공사의 명확한 구분이다.

한산통제영에 근무할 때 그렇게도 위하던 80노모가 자신의 직접 관할지역인 여수의 고음천에 계신데도 3년 동안이나 뵈지를 못해 당시 진주에 머물러 있던 제찰사 이원익에게 심금을 울리는 휴가신청서를 보내며 그 끝에 “그사이에 혹시 무슨 변고가 생긴다면 어찌 휴가 중이라 하여 감히 중대한 일을 그르치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공과 사와 절차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594년 갑오년 1월 12일 일기에는 하루 만에 떠나는 자식 이순신에게 그 어머니가 “ 잘 가거라.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라 하고 재삼 타이르시며 이별하는데 조금도 서운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다” 고 쓰고 있으니 위인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볼 수 있다.

부인 방씨와는 7년 전란기간 내내 따로 만나지를 못했으니 전라좌수사 부임이 곧 이들 부부의 이생에서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1594년 갑오년 8월 30일 일기에는 “ 이날 탐선이 들어와 아내의 병세가 아주 위중하다고 한다. 생사간에 벌써 결판이 났을지도 모르겠다. 나라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른 일에까지 생각이 미칠 수는 없겠으나 세 아들과 딸 하나는 어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쓰고 있으니 공과 사의 엄격한 구분에 희생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고뇌가 눈물겹다.

그러나 이때의 염려와는 달리 방씨 부인은 이순신 전몰후 정경부인의 품계에 올라 80이 넘도록 장수 하였는데 그 지혜와 엄정함을 기리는 두 가지 일화가 <방씨부인전>에 전한다. 방씨 부인의 아버지 방진은 보성군수를 지낸 무장인데 특히 활을 잘 쏘았으며 이순신의 무술연마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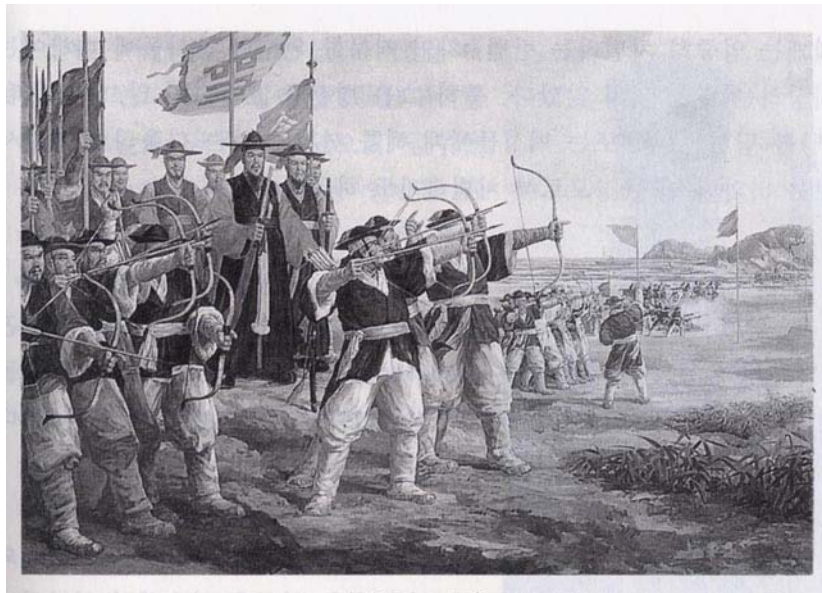
방씨부인이 어린 처녀였던 어느날 밤, 집에 도둑떼가 들었는데 아버지 방진은 활을 집어 들고 창문을 통해 화살을 날리다 보니 화살이 동이 났다. 난처해진 방진은 어둠 속에서 딸을 향해 화살을 가져 오라고 소리쳤다. 화살이 있을 리 없는 방처녀는 순간의 기지를 발휘해 베틀용 싸릿대를 한아름 안아다 큰소리로 “ 아버지 화살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며 방바닥에 와르르 소리 나게 내팽개쳤다. 화살이 멎어 필경 화살이 떨어진 것일게다 생각하며 안심하고 나무 뒤에서 걸어 나오던 도둑떼들은 싸릿대 떨어지는 소리를 진짜 화살대 소리로 알고 기겁하여

도망쳤다는 얘기다.

이운룡은 임란초 원균 수하의 장수로서 앞서 말한 대로 원균이 경상우수영을 버리고 도망치려 할 때 이영남과 함께 원균을 꾸짖고 이순신에게 구원을 청하도록 한 의기 있는 장수로서 원균 수하에 있으면서도 이순신의 깊은 신임을 받아 이순신이 “ 나를 대신할 사람은 이운룡밖에 없다” 고 말한바 있다.

이말대로 이운룡은 이순신 전몰 후 제7대 통제사가 되었는데 사랑 받던 옛 부하로서의 의리를 지켜 이순신의 사당에 참배하고자 성대한 위엄을 갖추고 들어가 먼저 방씨부인에게 문안 드리는 예단을 올렸으나 부인은 받지않고 꾸짖기를 “ 대장과 막하의 신분은 본시 한계가 엄연한데 저승과 이승이 비록 다르다 하나 예의에는 사이가 없거늘 대감의 사당을 지척에 두고 호각을 불며 곧장 들어오시기가 미안하지 않았소” 했다. 신임 통제사가 마침내 결례 했음을 깨닫고 사과 했다고 한다.

여기서 한가지 눈여겨 볼 것은 이순신은 이운룡의 예처럼 비록 남의 수하에 있는 장수라도 능력이 있으면 똑같이 사랑하고 아껴 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라좌수영 수군 조련도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

21세기에 다시 읽는 이순신 4

이순신의 효성과 가족사랑

난중일기의 첫장 첫날부터 시작하여 이순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100여회나 반복 되는데 이중 노당(老堂-늙으신 어머니), 병친(病親-병든 어머니), 견(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 등 몇 번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천지(天只)라는 아주 특별한 호칭을 쓰고 있다. 이말은 중국의 고전 사서삼경중 시경 용풍의 시에 나오는 모야천지 불양인지 (母也天只 不諒人只-어머님은 곧 하늘이시거늘 어찌해 내 마음 모르시는가)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의 지극한 효심과 아울러 해박한 학문적 깊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이라고 하겠다.

임진왜란 다음해인 1593년 1월, 이순신은 79세의 노모를 여수본영 근처 고읍천으로 모셔다

놓고 하루가 멀다 하게 문안 하였으며 며칠만 안부가 끊기면 노심초사 걱정하는 모습이 그의 일기 속에 소상히 들어난다. 이해 6월 12일 일기에는 [아침에 흰 머리카락 십여 오라기를 뽑았다. 흰 머리카락인들 어떠하랴마는 다만 위로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백발 노모 앞에 같은 흰머리를 보임은 불경이라는 생각에서일까 아니면 늙어가는 아들을 보며 마음 아파할 어머니까지를 헤아림일까 아니면 둘 다 일까 알 길은 없다.

1594년 갑오 50세 1월 11일-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어머니를 뵈기 위해 조카 분과 함께 고음천 어머니께 가니 아직 주무시고 깨시지 않으셨다. 응성대는 바람에 놀라 깨어 일어나셨는데 숨이 아주 가물가물해 앞이 얼마 남지 않으신 듯 하여 다만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1596년 병신 52세 8월 12일, 13일-종일 노를 재촉하여 밤 10시쯤에 어머니 앞에 이르러 보니 백발이 무성하셨다. 나를 보고 놀라 일어나시는데, 기운이 점점 없어져 아침 저녁을 보전하시기 어려웠다. 눈물을 머금고 서로 붙들고 앉아 밤이 새도록 위로하여 그 마음을 풀어 드렸다. (다음날) 옆에 모시고 앉아 아침 진지상을 드리니 대단히 기뻐 하시는 빛이었다.

이순신은 셋째 아들이지만 순위형 요신과 희신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동생 우신내외 마저 정유재란 전체인 병신년에 죽고 말았기 때문에 이순신은 외아들이 되어 나라의 운명과 함께 홀어머니와 세 형제의 조카들까지 돌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니 그 인간적 고뇌가 오죽했을까. 더구나 이순신은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난 아들을 하루라도 일찍 보려고 고음천을 떠나 천리 뱃길을 올라오던 83세 노모가 거친 물결을 이기지 못하고 배위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던 날인 정유년 4월 13일 일기에는 [종 순화가 배에서 와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한다. 뛰쳐나가 가슴 치며 날뛰나 하늘이 캄캄하다. 곧 해암으로 달려가니 배는 이미 이르렀다. 애통함을 어찌 다 기록하라]라고 쓰고 있고 5월 5일에는 [오늘은 단오절인데 아득한 타향에서 종군하느라고 어머니 장례도 못 모시고 곡하고 우는 일 조차 뜻대로 맞추지 못하니 무슨 죄와 허물이 있어 이런 갚음을 당하는가. 나와 같은 사정은 고금을 통하여 그 짝이 없을 것이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고 아프다. 다만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따름이다.]라고 처음으로 비판하는 심정을 토로 했으니 공에게 어머니의 자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짐작케 한다.

이순신은 자식들에게도 자애로운 아버지이자 스승이었다. 자식들을 경책하여 말하되 “ 만일 누가 묻는 이 있거든 너희들은 그 공로 있음을 말할 것이요 단점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고 가르쳤고 한산도 진중에서는 군졸이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자식들까지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하자 “ 남들이야 뭐라 해도 나의 자식인 너희들로서는 마땅히 살리는 길로써 남을 구해내는 것이어야 한다” 고 먼저 어진 마음을 가르쳤다.

원균의 칠천량 패전 후 조선 수군의 풍전등화와 같은 명줄을 손쉽게 조여 끊고 대망의 서해 북상로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었던 왜군이 명량바다에서 뜻밖에 이순신에게 치욕적인 참패를 당하자 그 양갓집으로 육로로 아산본가로 쳐들어 갔다. 본가를 지키던 막내아들 면이 분연히 대항하여 적군 세 명을 베고 전사하니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날의 일기는 실로 애절하기 그지 없다.

1597년 10월 14일-저녁에 천안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집안 편지를 전하는데 걸봉을 뜯기도 전에 뼈와 살이 먼저 떨어지고 심기가 혼란해졌다. 걸봉을 대강 뜯고 열의 글씨를 보니 곁에 ‘ 통곡’ 두자가 쓰여 있어 면이 전사하였음을 알고, 간담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통곡하였다. 하늘이 어찌하여 이다지도 어질지 못하신고 간담이 타고 찢어지고, 타고 찢어지는 듯 하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맞거니와, 네가 죽고 내가 살아 있으니 이렇게 어긋난 이치가 어디 있으랴. 천지가 어두워 캄캄하고 밝은 해조차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남달리 영특하기로 하늘이 이세상에 놔두지 않는 것이냐, 내가 죄를 지어 양화가 네몸에 미친 것이냐, 너를 따라 죽어 지하에서 같이 힘쓰고 같이 울고 싶건마는 네 형, 네 누이, 네 어머니가 또한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아직은 참고 연명이야 한다마는 마음은 죽고 형상만 남아 있어 울부짖을 따름이다.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일년 같구나, 하룻밤 지내기가 일년 같구나.

이틀후인 16일에는 [나는 내일이 막내아들의 죽음을 들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인데 마음놓 고

통곡하지 못하므로 소금 만드는 강막지 (본영소속의 종)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여 울고 싶어도 부하들 앞에서 울 수도 없어 외딴 종의 집에 가서 목놓아 울었으니 영웅에게 공과 사의 분명한 가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이순신 효행도 (해군사관학교 소장)

21세기에 다시 읽는 이순신 5

이순신의 공직 생활

난중일기 읽기를 마칠 때 쯤이면, 읽은 이의 뇌리에 뚜렷이 각인 되어 남는 하나의 영상이 있으니 그것은 이순신의 선명한 공직자 상이다. 이를 요약하면-

1. 직장을 찾아 다니지 않고 오직 쓰일 때를 묵묵히 기다린다.
2. 쓰이면 그 직을 목숨 걸고 수행한다.
3. 공과 사를 칼날 같이 구분한다.
4. 불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5. 일의 선후, 경중은 그 일의 대의와 성질에 따라 선명하게 결정한다.
6.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 결과와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

7. 자기를 절대 내세우지 않으며 부당한 처벌을 받았을 때에도 구태여 변명 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려 그에 깨끗이 승복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남을 원망 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등으로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순신은 서른 두 살 선달에 형편없는 오지이며 위험 지역인 함경도 동구비보의 권관으로 늦깎이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스무 한 해 동안 억울한 세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 종군을 당하고 쉰 네 살의 그 험난한 일생을 노량의 거친 파도에 잠재우며 나라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버린다.

3년간의 동구비보 수비대 근무를 마치고 1계급 승차하여 훈련원 봉사로 전근 와보니 거기에는 직속 상관으로 오늘날의 국장급에 해당하는 세 살 위의 서익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자기와 친분 있는 어떤 직원을 서열을 뛰어넘어 승진시키려 하였다.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정실인사를 기도한 것인데 실무담당관인 이순신의 단호한 반대로 좌절되고 이 소식이 퍼져 서익은 상관으로서 웃음거리가 되고 급기야 이순신에게 원한을 두게 된다. 3년후, 이순신이 고흥의 발포수군만호가 되어 착실히 근무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 서익이 군검열관인 군기경차관이 되어 이순신의 부대를 검열하게 되었다. 이순신에게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지만 서익은 상부에 보고를 거꾸로 하여 이순신을 억울하게 파직 시키지만 이순신은 끝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상부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존중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훈련원 서익 사건 때 이순신의 강직함을 전해들은 병조판서 김귀영이 그 인격을 사랑해 중신아비를 넣어 자기 서녀를 이순신에게 첩으로 주겠다고 자청했으나 이순신은 " 이제 내가 벼슬길에 갓 나온 사람으로서 어찌 권세 있는 집안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겠는가" 하고 한마디로 이를 거절했다. 또 이 시절 휴가를 받아 고향에 어머니를 문안하러 다녀올 때면 타가지고 갔던 식량 중 남는 것은 꼭 반납하는 것이었다.

발포에서는 파직 당하기 전 이런 일도 있었다. 이순신의 만호영 객사 앞에는 오래된 오동나무가 서있었는데 하루는 이순신의 직속상관인 전라좌수사 성박이 거문고를 만들고자 사람을 보내 그 오동나무를 베어가려 하므로 이순신은 " 이것은 나라의 물건이라 사사로이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심은 지 오래된 나무인데 하루아침에 베어 버릴 수 있단 말이나” 고 꾸짖어 돌려 보냈으니 그는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면 직속상관에 대해서도 뜻을 굽혀 맹종하는 일이 없었다.

밭포에서 파직되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불우한 이순신을 보다 못한 유성룡이 당시 이조판서로 조정의 인사권을 한 손에 쥐고 있던 율곡을 찾아가 보라고 권했으나 이순신은 “나와 율곡이 같은 덕수 이씨 문중이라 서로 만나 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가 전상(장관)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옳지 못한 일이지요” 하고 끝내 만나보지 않았다. 그런데도 당시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던 율곡은 그 뜻을 직접 이루지는 못했지만 같은 문중의 교감으로 이순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이순신이 전라좌수사에 임명되자마자 거북선 건조 등 군비 확충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이들에게 만남 그 자체는 따로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셈이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당시 전라도 일대는 정여립 반역 사건의 회오리가 스치고 간 한참 살벌할 때였는데 당시 전라도 도사로 있던 조대중이 관련자로 오해를 받아 구속수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무렵 마침 서울로 가는 도중에 조대중의 집을 수색하여 증거물로 서적과 문서들을 압수해 가는 금오랑(의금부 수사관)을 만났는데 그는 마침 이순신과 잘 아는 사람이었다. 금오랑이 “대중의 문서 속에 당신의 편지가 들어 있는데 빼드릴까요?” 하는 것이었다. 그때 이순신은 고마워 하기는 커녕 태연히 대답하기를 “대중이 본도 도사로 있으면서 내게 문안 편지를 보냈기로 나도 그에게 문안편지를 보낸 것 뿐이지요, 그리고 이미 관리의 수색물품 속에 들어있는 이상 그것을 사사로이 빼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고 거절했던 것이니 그는 이같이 앞으로 다가올 일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전혀 마음 쓰지 않고 오직 옳은 길만을 고집하였던 것이다.

임진년 정월 16일 일기에는 [성 밑의 토병 박몽세가 석수를 시켜 선생원 채석장에 가서 이웃집 개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므로 곤장 80대를 때렸다]고 쓰여 있으니 이는 철저한 민폐 방지의 표본이다. 어쭙찮은 세도를 부려 남의 개 한 마리 잡아먹고 곤장 80대에 몸이 망가졌을 것을 상상해보면 웃음이 절로 나는 대목이다.

정유년 6월 3일, 백의 종군길 일기에는 [아침에 종들이 고을 사람의 밥을 얻어 먹었다는 말을 듣고 종들을 매 때리고 밥쌀은 도로 갇아 주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는 집안 사람 단속과 민폐방지의 또 다른 표본이다.

이순신의 또다른 친필 기록인 [임진장초]는 전황보고서 또는 건의문인데 이중 승전보고서를 보면 참전 장병의 개인별 전과를 하나하나 소상히 보고하고 포상을 건의한 대목이 여럿 눈에 띈다. 또 일기 곳곳에는 탈영, 업무태만, 유언비어, 이적행위, 도적질 및 물품비리 등에 가차없이 목을 자르거나 벌을 주어 상벌을 엄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무척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이와 같이 이순신, 그는 선명하고 찬란한 공직자상을 스스로 구현하고 민족의 영원한 참스승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우리를 간곡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탄청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



전라좌수영 귀선 건립도 (아산 현충사 십경도)

21세기에 다시 읽는 이순신 6

이순신의 전술

이순신의 전술은 한마디로 “변환과 역동의 생존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진을 수시로 옮기며 한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도 않았고 같은 전법을 되풀이 해서 쓰지도 않았다. 다도해 남해안의 어느 섬 어느 포구도 이순신의 작전지역이 아닌 곳이 없었고, 항상 살아남는 생존의 전략을 으뜸으로 하여 싸울 때마다 적에게만 막대한 피해를 줄뿐 우리 수군은 신기하리만큼 온전히 살아남게 하니 이것이 바로 절대 열세의 조선 수군이 임진 7년기간을 끈질기게 살아남아 상승불패의 완승을 이룩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치고는 어느새 물러가 숨으며, 내일이면 또 옮겨가 숨으니 왜적들에게 조선수군은 보이지 않는 적이었고 어제의 경험으로 대비하고 있는 왜적 앞에 오늘의 이순신은 또 다른 전법으로 달려드니 왜적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기껏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최선의 대응 전략이라는 것이 싸움에 응하지 않고 해안으로 피해가 기대앉는 것이었다.

최초의 싸움인 옥포해전에서는 탐색전답게 겁에 질려있는 장졸들에게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무겁기를 태산같이 하라”는 작전지시로 비밀 신무기 거북선은 숨겨 놓은 채 24척의 관옥전선만으로 수색작전을 시작하더니 2차 출전인 사천, 당포, 당항포해전에서는 회심의 비밀병기 거북선을 앞세워 왜군의 조총을 일거에 무력화 시키며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가 좌충우돌 적진을 교란시키고 우리 같이 쏘며 부딪쳐 깨니 이 전투선의 몸싸움이 이룸하여 당파전(撞破戰-배와배를 부딪쳐 부수는 싸움)인데 이순신은 이미 1차 옥포해전에서 일본 싸움배가 구조적으로 약체임을 간파했던 듯 하다.

그런가 하면 한산전양해전에서는 유인전술로 73척의 적을 큰 바다로 끌어내더니 복병으로 숨어있던 원군, 이역기와 더불어 56척의 선단으로 쌍학익진 이라는 신기한 포위 전술로 왜선 59척을 박멸하고 왜군 9천여명이 몰살하니 왜장 와키자카 야스하루(협판안치)는 화살을 맞은 채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김해로 쫓겨 들어가 조선수군은 제해권을 완전 장악하게 된 것이다.

다음 부산포해전에서는 166척의 연합수군을 편성하여 그 세배가 되는 470여척의 왜선단이 옹크리고 있는 본거지를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 적선 100여척을 부수는 대첩을 거두었으나 육군의 합동지원이 없어 완전소탕을 이루지 못한 점과 가장 아끼던 부하 정운장군을 여기에서 잃어 한을 남기고 말았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명량대회전에서는 대전을 앞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조선수군에 내린 이순신의 첫마디가 “ 오늘 너희는 살아남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더니 기적 같은 완승을 거두고 난후의 일기에는 이날의 전황을 극적으로 자세히 쓰고는 그 끝에 “ 이는 진실로 천행이었다” 했으니 133척의 큰 왜적을 겨우 굶어 모은 13척의 초라한 관옥선단으로 막아 싸워야 했던 이순신의 다급했던 고뇌가 잡힐 듯 보이는 대목이다.

세계 해전사의 최고 걸작 실전드라마인 이 명량해전은 이순신전법의 종합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특성의 첫째는 초인적인 투지와 용기이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3대1의 싸움도 기가 질릴 판인데 10대1 전투를 계획 감행했으며 실제로는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믿었던 중군장 김응함과 안위마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한시간 남짓 혼자서 막아 싸웠으니 사람으로는 갖추기 어려운 담력이다.

둘째, 지형 지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전법을 즐겨 쓴다는 점이다. 명량협수로는 폭이 3백여 m 이고 최저수심은 1.9 m 밖에 되지 않아 관옥선급 대형전투선은 겨우 한 두 줄로 통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순신은 이 물목만 잘 지키면 적선이 아무리 많아도 해 볼만 하다고 판단 했던 듯 하다. 또 이 명량해협에 물속으로 쇠사슬을 가로 걸쳐 놓았다가 썰물의 낮아진 수심에 퇴각하던 왜선들이 걸려 넘어지게 했으니 이보다 더 지리적 조건을 잘 활용한 작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정탐 첩보활동을 강화하여 항상 적을 소상히 파악해 나가므로 손자병법의 금과옥조인 [지피지기 백전백승]을 철저히 실천하여 적의 기습을 피해 생존을 확보하고 무리한 전투를 피하여 전력의 손실을 막으며 나아가 적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효과적인 작전계획을 도출해 낸다는 점이다. 난중일기의 여러 곳에 초탐선 탐후선 수색선 척후군관 정탐인들이 언급되어

있고 명량해전에서도 척후군관 임준영, 탐망군관 임중형, 탐후인 봉좌 태귀생 박수환등 구체적인 실명기록을 볼 수 있다.

넷째, 신속대응 능력이다. 명량해전은 원군의 칠천량 전멸후 꼭 두달만의 재대결인데 백의중군중 오늘날의 합천인 초계를 7월 17일에 출발하여 육로로 8월 18일 회령포에 도착, 판옥선 십여척을 수습한 기록으로 보면 9월16일 명량해전일까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천오백 신병을 모집하여 훈련을 끝냈다는 뜻이니 놀라울 뿐이며 이는 이순신의 좌수사 임명 후 일년 만에 거북선창제 건조 등 군비를 신속하게 확보했던 실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섯째, 이순신은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는 전쟁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앞의 신속대응도 이순신의 통제사 복귀 소문을 듣고 숨어있던 장병들이 스스로 찾아온 데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이며 해전당일에도 이순신이 제일 먼저 취한조처가 이순신을 따라다니던 피난선 300여척을 대피시킨 일인데 이중 100여척은 초라한 조선 수군을 들러리 서기 위해 뒷 쪽에 줄서 있었다. 막상 전투가 치열해지자 왜군들이 이순신의 판옥선에 기어 오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마하수 5부자 피난선이 싸움에 뛰어들어 참화를 당하는 장면은 그대로 한 폭의 감동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이순신은 투철한 사명감, 부단한 노력, 명석한 판단력, 뛰어난 창의력과 인간존중의 기반 위에서 별표와 같은 찬란한 상승불패 기록을 역사에 남긴 것이다.

<참조: 다음 페이지의 임진왜란 해전 일람표>

21세기에 다시 읽는 이순신 7

잘못 알려진 임진왜란의 무기들

임진왜란의 역사교육 중 가장 잘못된 부분이 무기에 대한 오인이다. 임진왜란의 일등공신이 이순신 이라면 이순신의 일등무기는 단연 화포였다. 그래서 이 화포의 기본기술인 화약을 개발한 고려 말의 최무선을 [임진왜란의 소리 없는 일등공신]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조선수군의 주력인 판옥전선이나 거북선에는 배의 양쪽으로 각각 6문씩 12문과 앞뒤 두 세 개를 합하여 14문 내외의 화포를 장착하고 있었고 여기서 발사되는 차대전, 장군전등 셋가래 만한 대형 나무화살은 그 사정거리가 500~800m 인 반면 왜군의 조총은 유효사거리가 50m 정도밖에 안되니 육전과 같이 접근전을 할 수 없는 해전에서는 이로써 이미 결판이 난 셈이다. 현대전의 대포와는 달리 당시의 화포는 포탄을 쏘는 것이 아니고 대형화살이나 쇠공을 쏘아 그 충격파괴력으로 적의 배를 부수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공헌을 많이 한 무기는 조선수군의 주력전함인 판옥선이다. 판옥선은 왜구가 극성을 부리던 고려 말 이조초에 걸쳐 그 대책이 국가적 과제가 되어오다가 우수한 전함을 만들어야 한다는데까지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성종 연산 중종 명종대에 걸쳐 배가 다소 작더라도 수적으로 많이 만드는 것이 옳다는 소함주의자와 척수는 적더라도 큰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대함주의자가 대립하던 끝에 명종대에 이르러 천만다행으로 대함주의자가 승리하여 탄생한 대형 목선으로 밀이 상자 또는 뗏목 모양으로 평평한 U자형 평저선으로 화포의 발사충격을 잘 견디고 왜구가 기어 오르기는 어렵고 활은 내려 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선체를 높이 만들었는데 특히 질긴 조선 적송으로 쇠못을 쓰지 않고 나무못으로만 만들어 체질이 강인한 명품으로 당시 한중일 동양 삼국전선 중 가장 우수한 전함이었다. 이순신은 실전에서 이 체질적 강인성을 십분 이용하여 부딪쳐 부수기인 당파전을 즐겨 썼다.

일본과 중국의 함선은 밀이 역삼각형과 같은 V자형 첨저형으로 속도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나 화포발사 충격을 잘 견디지 못해 왜군은 몇 개 안 되는 철포를 조선수군처럼 갑판에 놓고 쏘지를 못하고 그네처럼 밧줄로 매달아 놓고 쏘았으니 조작이나 조준이 제대로 되기가 어려웠고 체질적으로도 약하여 조선의 판옥선과 부딪히면 먼저 깨어지는 약점이 있었다.

전란말기에 이순신은 명나라 진린수군의 보강책으로 판옥선 두 척을 빌려준 일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판옥선에 화포를 장착하면 강력한 전함이 되었던 것이니 우리조상의 슬기가 감탄스럽다.

세 번째는 거북선이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거북선은 단 3척뿐이었다 (소토오카 진자에몬의 고려 선전기, 나주목지 나대용편). 판옥선이 많을 때는 160여척에 이른 것과 비교하면 거북선이 주력전함이 아니었음은 자명해진다. 그러나 철갑 거북선은 가장 긴요한 때에 가장 긴요한 곳에서 가장 긴요한 역할을 실행하리만큼 만족스럽게 해낸 조선의 또 다른 기발한 창제품인데 신기하게도 임진왜란 발발 바로 하루전인 1592년 4월 12일 화포실험을 끝낸것으로 일기에 기록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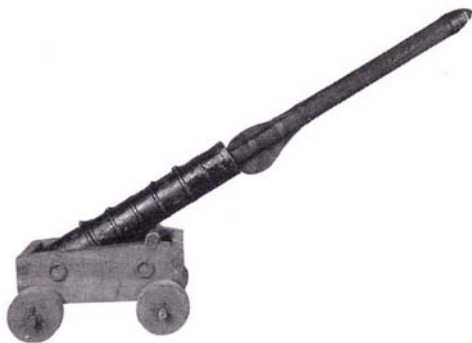
이순신의 2차 출전인 사천해전부터 투입되기 시작한 거북선의 역할은 돌격선으로 맨 앞에서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 쏘고 부딪혀서 일거에 적군을 통제불능의 혼란 속으로 몰아 넣는 역할인 것이다. 거북선의 실전 활약상에 대하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임진 7월 10일 안골포해전에서 왜함대에 승선 중군한 69세의 소토오카가 기록한 고려선전기(高麗船戰記-이씨조선을 고려로 쓰고 있음) 에 “ 아침 8시부터... 그 중 3척은 장님배(거북선의 일본측 별명)인데 철판을 입혔고 석화시(길이 2m 가까운 굳은 나무로 만든 대형화살-차대전인 듯), 오가리마따(장군전인 듯)등을 쏘면서 오후 6시까지 번갈아 달려들어 쏘아대어 다락에서 복도, 테두리 밑의 방패에 이르기까지 모두 격파되고 말았다...어리석은 노인의 붓끝이 후일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써놓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여 그 처절한 패전참상을 생생하고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당시의 조총은 두꺼운 참나무 방패판도 뚫지를 못했으니 철판을 씌운 거북선의 접근화포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이었던 것이다. 이 거북선은 구조적으로 판옥선에 등판을 붙이고 철갑과 쇠못을 박은 것으로 이순신의 발명이라기 보다는 이순신의 개발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서울공대 조선공학과 김재근 교수). 그 근거로는 태종대의 기록에 임진강에서 수전연습을 하는 거북선 기록이 있기 때문이며 거북을 보고 창안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다분히 우화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거북선에는 목이 위로 솟은 좌수영 귀선과 목이 움츠려 들어 몸통에 붙어 있어서 그 입으로

화포를 발사할 수 있게 한 통제영 귀선 등 두 모델이 기록에 남아 있다. 승선인원은 거북선 판옥선 모두 140명 정도이고 동력이 없는 시대이어서 그 중 90~100명 정도가 노를 젓는 노꾼이었다.

네 번째는 조선의 독창적 화살 편전(片箭-애기살)이다. 보통의 화살 길이가 80~85cm인데 반해 편전은 36~50cm 밖에 안된다. 활을 힘껏 당겼을 때 활과 화살을 잡은 두 손의 거리가 70~80cm 나 되기 때문에 이 편전을 쏘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쪼개어 속을 파낸 “통아” 라고 하는 일종의 탄도 보조장치를 써야 했다. 이 편전의 장점은 화살이 가벼워 멀리 쏠 수 있으며 “통아” 를 쏘기 때문에 정확도와 명중률이 높고, 적이 이 화살을 줍더라도 통아와 사격술이 없어 되돌려 우리쪽으로 쏠 수가 없다는 3중의 이점이 있었다. 조총에 비해 화살이 단연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조총이 치명상을 입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정거리가 50m 정도밖에 안되고 발사준비의 간격이 있어 속사가 어려운 반면, 화살은 치명률은 낮으나 멀리 쏠 수 있고 연속사격이 가능하여 접근전을 허용치 않는 해전에서는 훌륭한 무기로 그 역할을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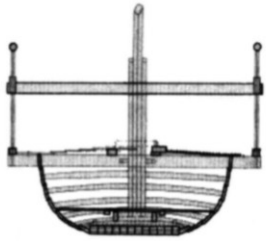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이순신은 우리 조선수군이 보유한 무기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 확신하고 이를 십분 활용하므로서 그 많은 왜적을 제압했던 것이다. 이것이 곧 지장이며 승장인 이순신과 용장이며 패장인 원균의 차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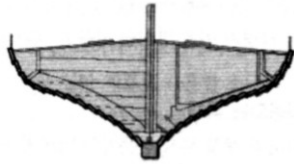
화포에 장착된 장군전 (해군 박물관 소장 모형)



왜수군 총대장 구키요시다카 가문에 소장된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 총통용 화살.
전체 길이 168 cm



평저선 (판옥선 및 거북선)



일본, 중국형 첨저선

21세기에 다시 읽는 이순신 8

기록적 공헌과 민권 의식

이순신의 친필기록으로는 [난중일기], [임진장초], [서간첩]등 세가지가 보존되어 오고 있다. [난중일기]는 임진년 (1592)1월 1일부터,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이틀전인 무술년 (1598) 11월 17일까지 약 7년 전쟁기간을 거의 망라한 이순신의 친필 진중일기로 정조 때에 [이충무공전서]를 만들면서 편의상 붙인 이름이다. [난중일기]의 가치는 이순신이 처했던 전란 핵심 실무지휘자의 위치와 그의 가감 없는 올곧은 성품과 철저한 기록정신으로 인하여 임진전란의 전개와 정황에 대한 동양 3국중 가장 정확한 기록으로 임진 왜란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보전으로 당시 군사, 정치, 사회, 지리, 농업, 문화, 문학, 풍속, 민생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실기 기록으로 국보 7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일기 중에 등장하는 사람이름만도 1,050여에 이르며 지명만도 460여곳이 언급되고 있으니 그 규모의 방대함을 알만하다. 그래서 한산통제영에서 잡혀갈 때 이 일기가 함께 압수되지 않은것이 실로 민족의 다행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만약 이 일기가 압수되어 갔더라면 이순신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나라는 무너지고 일기는 분멸되어 그 귀중한 기록이 영영 없어지는 불행으로 이어졌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비판과 개탄은 모두가 공의를 위한 충정일 뿐 자기 자신을 위한 사감이 전혀 없었지만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우던 당쟁의 무자비함 앞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죄목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순신의 기록정신은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 그것은 이순신이 뼈대 있는 명문 선비집안의 자제로서 22세에 무예수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비로서의 수준 높은 학문을 익혔기 때문이며 특히 뛰어난 글재주가 있는데다가 그 어머니 초계 변씨의 엄격한 가정교육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순신은 덕수 이씨로 고려 중랑장 이돈수의 12대손인데 조선 왕조로 넘어오면서 7대조 이변은 영중추부사와 홍문관 대제학을 지냈고 9대조이며 증조부인 이거는 병조참의를 거쳐 성종 때에는 동궁의 강관으로 연산군을 가르쳤고 성종 연산 양대에 걸쳐 사헌부 장령(현재의 대검검사)이었는데 불의에 대해 용서가 없어 “호랑이 장령”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다 한다. 10대조이며 할아버지인 이백록은 의식 있는 올곧은 선비로 정의에 불타 조광조 등과 뜻을 같이 하다가 기묘사화에 화를 당하니 이 불행이 그의 아버지 이정으로 하여금 관직의 뜻을 버리고 가난한 선비로 남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가계의 배경으로 이순신은 실로 보기 드물게 문무 겸전의 지장으로 문반승상의 이조사회에서 선비로서의 출세도 충분히 가능했을 터인데 무인의 길을 택한 이순신의 결의와 이를 용인한 그 부모들도 함께 민족의 크나큰 은인인 것이다. 이순신 후대에 이르러서는 주로 무인의 길을 걸어 아들 면의 전사후 조카 이완, 4대손 이흥무, 5대손 이봉상 등 세 사람이 순절하여 충신정려를 하사 받으니 4충신 5순절의 충의의 가문으로 우뚝 선 것이다.

이순신의 이들 친필기록의 글줄 사이 사이에는 지극히 숭고한 공의 사상이 묻어나오고 있으니 그것은 천민과 노비들에 대한 면면한 사랑과 인권의식이다. 신분의 엄연한 차등화가 전통화 되어 있던 그 시대에 이와 같은 애민 사상을 지녔음은 오직 놀라울 뿐이며 시대를 앞서가는 마음가짐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순신의 또 다른 친필기록인 [임진장초]는 임진전란기간에 조정에 올린 승전 및 전황보고서와 건의문 등 공문서철인데 임진 6월 14일 당포, 당항포 등 네 곳의 승첩을 아뢰는 계본에는 [접전할때, 사졸로서 화살이나 철환(총알)을 맞은 사람 중에는 신이 타고 있는 배의 정병 김말산, 우후선의 방포진무 장언기, 순천 1호선의 사부이며 사삿집 종인 막대와 보자기(물속에 들어가 조개 미역 등을 채취하는 사람) 내은석, 보성 1호선의 사부(활쏘는 사람)이며 관청의 종인 기이, 홍양 1호선의 전장 (화살 만드는 사람)이며 관청의 종인 난성, 사도 1호선의 사부이며 진무인 장희달 여도선의 사공이며 토병인 박고산과 격군(배짓는 사람) 박궁산 등은 철환을 맞아 죽었으며... 방포장(화포 쏘는 사람) 허종원 등은 화살에 맞았으나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위의 사람들은 시석 (화살과 돌, 곧, 총알)을 무릅쓰고 결사적으로 돌진하다가 혹은 죽고 혹은 상한 것이었으므로 죽은 사람의 시체는 각기 그 장수에게 명하여 별도로 작은 배에 실어서 고향으로 보내어 장사 지내게 하였는데 그들의 처자들은 홀전(구호대책)에 의하여 돌보아 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온갖 천한 직종이지만 그 이름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정성 들여 썼으니 이보다 더한 보살핌이 다시 있을 수 없다. 이 장계에 따라 어떠한 포상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이순신의 이 장계로 인해 이름 없이 쓰러졌을 보잘 것 없는 민초들의 이름이 청사에 영원한 기록으로 살아 남았으니 공의 처절한 기록정신의 또 다른 역사적 공헌이 아닐

수 없다. 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전황의 또 다른 면모는 온갖 직종이 망라 된 듯한 국민 총력전의 양상으로 당시 급박했던 대응전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칼의 노래]의 주제인 이순신의 두 자루 장검은 현재 현충사에 보존되어 있는데 그 칼에는 한산통제영에서 그 칼을 만든 두 대장장이 태귀련과 이무생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그 이름이 천세에 전해지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이순신의 애민인권 사상이 이들 천민들의 자존심과 사기를 드높이고 이순신을 하늘처럼 믿는 신앙으로 되돌아와 불패강군을 이루는 요체가 되었던 것이다.

명량해전 직전인 정유년 8월 9일 일기에는 “점심 후 길에 올라 10리쯤에 이르니 노인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다투어 술병을 가져다 바치는데 받지 않으면 울면서 억지로 권하는 것이었다”고 이순신의 통제사 복귀를 감동적으로 환영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임진 다음해인 계사년 6월 10일에는 평민들처럼 샷자리 20냥을 찢다고 썼고 이틀 뒤인 12일에는 “종 갖동과 종 철매가 병으로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 참으로 가여웠다”고 연민의 정을 기록하고 있고 병신년 윤 8월 14일에는 “지나온 지역이 온통 쑥대밭이 되어 그 참혹함을 차마 볼 수 없었다. 우선 전선 정비하는 것을 잠시 면제하여 군사와 백성들이 당하는 노고를 풀어 주어야겠다.”고 지도자로서의 애민사상을 기술했던 것이다.

또 일기의 도처에는 부하장졸들과 상의하는 모습과 출전할 때마다 동료 수사인 원균 이억기와 더불어 반드시 작전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었으니 그는 이미 사백년 전에 애민 민권의식을 갖추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한산도에서 장졸의 헛된 죽음을 강요하는 임금의 출전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수 천명 사랑하는 부하들의 목숨을 보전하며 차라리 자기목숨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난중일기》친필초본 (아산 현충사 유물관 소장)

위 왼쪽은 壬辰日記(5월 3, 4, 29일 및 6월 1일조),
 위 오른쪽은 丁酉日記II(10월 13, 14일조).

21세기에 다시 읽는 이순신 9

유능한 대명외교관 이순신

임진 정유왜란의 일본측 공식역사명칭은 그 원흉 토요토미(풍신수길)의 연호를 따서 분로쿠 케이초에키(文祿慶長役)라 하고 흔히는 줄여서 조센에키(朝鮮役)라고 부르며 명나라에서는 신종황제의 연호를 붙여 만력의역(萬曆逆)으로 기록하고 있다.

임진왜란은 결코 조선과 일본사이의 사소한 지역적 국지전이 아니다. 명나라를 포함한 동양삼국의 본격적 국제대전으로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백만의 인명을 희생시키고 관련국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며 참전국의 흥망과 성쇠를 가름한 처참한 근대전인 것이다.

전쟁의 직접 피해국인 조선은 막대한 인명의 손실 이외에도 전국토의 초토화로 170만결이던 농토가 54만결로 줄어들었고 귀중한 문화재의 유실, 사회적 신분제도의 이완과 사회불안, 민란과 도둑의 극성을 겪어야 했고 침략국 일본도 재원의 고갈과 민생의 피폐화로 봉건영주들이 장악력을 상실하여 도쿠가와 막부정권의 출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금속활자기술과 ‘ 퇴계집 ’ 등 귀중문헌과 학자, 도자기공들을 포로로 잡아가 획기적인 성리학과 문화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약 5만명의 대규모 원군을 파견했던 명나라도 그 후유증으로 쇠퇴의 길을 자초하여 여진족 누루하치의 청나라에 그 국권을 넘겨주는 원인이 되었다. 국력을 기울인 명나라의 원군참전은 그 이름처럼 제 3국으로서의 선심지원 참전이 아니라 그 실상은 자국 방어책의 일환인 발등의 불 끄기였던 것이다. 그것은 임란의 원흉 토요토미가 공언한 가도입명(假道入明 -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빌려달라)으로 명에 대한 침략의지를 노골화하기도 하였지만 그때까지 겪었던 명의 왜구피해로 보아 자기네 방어선인 조선이라는 긴요한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급한 김에 애걸하여 불러들인 명군은 조선에 삼중고통을 안겨주었으니 그 첫번째는 행패와 약탈행위이며 두 번째는 전국주도권을 쥐고는 조선의 희망과는 달리 부전화외(싸움은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내려는 의도)로 세월을 보내고 세 번째로는 5만 대병을 먹이고 입히는 재정적 부담이었다. 그 당시 명나라에서 온 장수들은 하나같이 거만하고 방자하였지만 산둥반도로부터 명나라 수군 오천 명을 이끌고 강화도에 도착한 도둑 진인은 본국에서부터

난폭하고 거만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는데 조선의 관민들을 때리고 욕하는 일들이 마치 짐승을 다루듯 하였다.

상국인 명의 수장급 장수에게는 조선의 임금마저도 저두평신(低頭平身-머리를 낮추고 허리를 평평히 90도로 구부려하는 절)을 해야 했으니 그들의 행패에 대해서는 안으로 울분을 새길뿐 어찌해보는 도리가 없었다.

진인은 강화도에서 곧바로 이순신이 있는 고금도로 가지 않고 한강을 거슬러 한양으로 들어와 기어이 융성한 대접을 받은 후 무술년 (1598년) 6월 26일 선조를 비롯한 수많은 중신들로부터 송별인사를 받으며 떠나는 자리에서 조금 늦게 참석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찰방(역참의 하급관리) 이상규의 목을 짐승처럼 새끼줄로 엮어 매어 끌고 다니는 행패로 인하여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는 잔혹한 참극이 벌어졌다.

보다 못한 영의정 유성룡이 선처를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를 본 조정의 대신들이 한결같이 진인의 행패가 결국은 이순신을 망치겠구나 한탄하며 일변 이순신에게 은밀히 따로 연락하여 진인의 비위를 잘 맞추라고 당부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와 같은 사전정보로 진인의 성격을 미리 파악한 이순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 명나라 수군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불구대천의 원수 왜군을 격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군사들을 시켜 산에 가서는 사슴과 멧돼지를, 바다에서는 온갖 물고기를 잡게 하고 많은 술과 음식을 준비해 놓고는 7월 16일 군사를 멀리 이끌고 나가 격식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정중하게 진인을 영접해 들었다. 진인에 들어오자 준비해놓은 음식으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명나라 군사들은 배불리 먹고 취하여 진인 이하 모든 장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순신을 칭찬하며 그 후대에 감사하였다.

이틀후인 18일에 왜선 100여척이 녹도진으로 침입해오자 처음으로 조명 연합수군이 출동하였지만 왜선들이 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이순신은 녹도만호 송여종에게 전선 8척을 주어 절이도에서 복병케 하고 진인도 자기군사 30척을 근해에 남겨두어 대비케 하고 이순신과 함께 고금도로 귀항하였다. 5일후 이순신과 진인이 운주당에서 술상에 마주앉아 환담할 때 명나라 군관 한 사람이 절이도로 부터 와서 “ 오늘 새벽에 적선을 만났으나 조선수군이 왜적을 모조리 잡아버려 명군은 싸우지도 못했고 따라서 수급(머리)도 베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 보고를 들은 진인은 들고 있던 술잔을 집어 던지며 길길이 화를 내었는데 이를 본

이순신은 진인의 속마음을 알아채고는 “ 노야(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께서는 명나라의 대장으로 멀리 이곳까지 왜적을 토벌하러 오셨으니 이곳에서의 승리는 모두 노야의 것입니다. 오늘의 수급을 모두 노야에게 드리겠으니 그것으로 첫 승전보고를 귀국 황제에게 하면 매우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진인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순신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 중국에서부터 이미 장군의 명성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 장군에 대한 모든 칭찬이 거짓이 아니었구려” 하며 진심으로 탄복하는 것이었다.

군공을 빼앗기고 허전해하는 송여종과 조선군졸들에게 이순신은 대의를 들어 위로했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후에도 진인은 여러 번 이순신과 같이 출전하였으나 그때마다 안전한 후방에서 맴돌아 명군들이 수급을 입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뱃전에서 성을 내어 고함만 지르곤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이순신은 힘써 싸운 군공을 진인에게 나누어주어 그의 마음을 달래곤 하였다.

이러는 동안 진인과 명군은 이순신의 전술에 탄복하여 전투를 할 때마다 이순신을 기꺼이 따르게 되었으니 이순신의 능란한 외교에 황폭하던 진인 마저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명군들은 본성을 드러내 부당한 우월감으로 백성들에게 행패와 약탈을 일삼아 이순신이 엄중 항의하였으나 말로만 알았다고 할뿐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뿐이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순신은 어느날 짐짓 명군 지역에 가까운 민가와 군사시설을 철거하여 배에 싣도록 하였다. 느닷없는 철거작업에 놀라 달려온 진인이 그 까닭을 물으니 이순신이 태연히 대답하기를 “ 조선의 군사와 백성들은 귀국의 대장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마치 부모가 오신 것 같이 우러러 보았는데 이제 귀국 군사들이 행패와 약탈을 일삼아 백성들이 살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피하려 하니 이 나라 대장으로서 혼자만 남을 수 없어 함께 떠나려 하는 것이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진인이 극구 말렸으나, 이순신은 한가지 조건을 내거는 것이었다. “ 귀국 군사를 처벌할 수 있는 군벌권을 나에게 주시면 그리하리다.” 이순신과 헤어지면 작전 및 주둔 생활이 어려워 질줄을 뻔히 내다보는 진인은 이를 흔쾌히 허락했고 군벌권을 확보한 이순신은 행패하는 명군을 몇 차례 엄히 벌하여 오만과 행패를 잠재운다. 이리하여 이순신은 명나라 군사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조선인이 된 것이다.

뒤에 진인은 이순신에 완전히 감화되어 이야(李兪)라고 높여 부르면서 “ 그대는 작은 나라에서 살 사람이 아니오” 하며 중국에 들어가 벼슬생활하기를 권했고 이순신의 전물

후에는 누구보다도 그 죽음을 애석해 하며 그 인물됨을 극찬하고 명나라 황제로 하여금 8사품(여덟가지 선물)을 하사하게 하였으니 이는 이순신, 바로 그 숭고한 인격의 승리인 것이다.



명 황제의 8사품중 다섯가지 - 참도, 귀도, 곡나팔, 도독인, 영패
(아산 현충사 유물관 소장)

21세기에 다시 읽는 이순신 10

임진왜란의 사건과 사람들

<소금장수 이순신>

이순신은 임진 다음해에 군량 확보와 피난민 구제책으로 군사와 난민이 함께 농사지어 나누는 둔전제를 건의해서 실시했고 전쟁말기인 무술(1598)년 고하도 고금도 시절에는 극심한 군량난 해결과 간첩선봉쇄의 일거양득 묘책으로 해로통행첩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순신 관할수역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이 해로통행첩을 발급받아야 했는데 큰 배는 일년에 쌀 석섬, 중간배는 두섬, 작은배는 한섬이었다. 피난민들은 기꺼이 이에 응했는데 이유는 이순신 수영근처에 머물수 있다는것이 곧 생존을 보장받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또 바닷물을 불로 쪼여서 소금을 만들고 생선을 잡고 미역을 따서 주민들의 곡식과 바꾸어 군량화했으니 서로좋은 상생의 대책이 실로 감탄스럽다.

<나라를 건진 우정>

어린시절 세살만이 동네친구로 이순신을 전라좌수사에 역천한 사람은 당시 좌의정 유성룡인데 이순신에게 유성룡은 친구이자 정신적인 지주로서 이순신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을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우정과 상호신뢰가 결국은 나라를 구했으니 이보다 더 큰 우정은 없을 것이다. 행주대첩의 명장 권율도 유성룡이 천거했으니 그는 사람을 가려보는 천재이며 전쟁을 지혜롭게 다스린 명신이다. 이순신의 의금부 구속때는 당색으로 인한 입장의 어려움으로 구명운동에 나서지 못했고 전쟁직전에는 당론을 거스르지 못해 통신부사 김성일의 전쟁 부재론을 편든 옥의 티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순신과 원균>

두 사람의 수평적 직접 비교 자체가 두루미와 참새가 같은 새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대비하려는것과 같은 무리이다. 종전 후 선조임금이 이순신과 원균을 똑같은 선무일등공신으로 책봉한 근거로 원균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이론을 들고나오는 이들이 있으나

이는 선조대왕의 혼조일 뿐 옳지 못하다. 그 근거는 유성룡의 징비록에 [원균이 전함 100척을 자침(스스로 물속에 가라 앉히고)하고 군사 만 명을 해산했다.]는 기술과 체찰사 이원익의 [흉악한자]라는 표현과 한산도 진중 과거시험의 참서관이던 삼가현감 고상안의 회고에 [원수사는 거칠고 사납고 무모한데다 인심마저 잃고 있었다.]는 기록과 난중일기에 원균이 군공을 위장하기 위해 죽은 우리 어부의 목을 잘라 모으고 있었다는 개탄이 있어 그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임진왜란의 죠커 배설>

통제사로 승진한 원균의 후임 경상우수사로 부임한 배설은 원균과 함께 칠천량해전에 참전 하였으나 원균의 무모한 지휘에 실망, 위기를 느끼고 판옥선 12척을 이끌고 도망쳐 왜군의 상륙이 임박한 한산통제영을 불태우고 서쪽으로 도주, 후일 회령포에서 통제사에 재임명된 이순신 막하로 들어왔으나 명량대전 직전에 다시 도망쳐 버렸다. 그러나 그 절대절명의 명량해전 13척 판옥선 중 12척이 바로 배설이 끌고 도망쳐온 배들이며, 이순신이 타고 것처럼 처절하게 싸운 좌선(대장선)이 바로 배설의 판옥선이었으니 배설의 칠천량도주는 바로 명량대승첩에 결정적 기여가 된 것이다. 뒤에 배설은 고향 선산 땅에서 권율에게 체포되어 한양으로 끌려가 목 잘려 죽었지만 결과적으로 배설은 죄인인가 공신인가 역사의 아이러니는 헤아릴 길이 없다.

<이순신에게 혼쫓난 왜장들>

와키자카(협판안치)는 합포, 적진포, 사천, 한산도, 당항포 등 적어도 다섯 차례나 이순신에게 박살 나고 한산해전에서는 화살까지 맞아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김해로 들어갔으니 그는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했을 것 같다. 명량해전의 선봉장으로 참여했다가 이순신에게 토막쳐 죽은 구루지마(내도총통)는 해적출신 장수로 그 동안 조선연안을 괴롭히던 왜구두목이 드디어 우리의 영웅에게 잡혀죽었으니 인과응보가 바로 이런 것인가 싶다. 노량해전의 시마즈(도진의홍)는 살마군단이라 하여 잔인하기로 이름이 높았는데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조명연합군의 집중화살 공격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부하들이 인간방패로 대신 화살을 맞아 죽어주는 바람에 겨우 목숨을 보전해서 줄행랑을 쳤다.

<전쟁의 참상>

계속되는 전란은 극도의 식량난을 촉발하여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극한 상황을 낳았다.(난중일기 갑오 1594년 2월 9일).

정유재란때 도요토미(풍신수길)는 전라도 진격을 신속히 하지 않는데 대한 단속으로 조선사람의 목을 베는 대신 병사 1인당 코 한 되씩을 소금에 절여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왜군들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조선사람을 산채로 코만 베는 경우가 생겨 전후 거리에 코 없는 사람의 왕래를 볼수 있었다 한다. 일본에는 코를 주고 받은 영수증이 수없이 보존되어 오고 있는데 총합계로 조선 사람의 코 185,738개, 명나라 사람의 코 29,014개, 합계 214,752개라는 기록이 있다. 일본의 [귀무덤]은 [코무덤]의 와전이다.

<숨가쁜 역사의 한일 대경주>

일본을 통일한 토요토미가 조선침략의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는 동안 하늘은 조선에 이순신이라는 기막힌 방패를 내려주셨다. 이순신이 임란 발발 1년 전인 1591년 2월 13일 천신만고 끝에 전라좌수사에 올라 군기를 보강하고 판옥선을 건조하며 신형전함 거북선을 일본의 조선침략 하루전인 4월 12일에 완성했으니 실로 아슬아슬한 대경주를 펼친 셈이다. 또 정유재란때 통제사에 재임명된 이순신이 군사와 군량을 모으며 구례를 8월 4일에 지나갔는데 남원을 공격하러 서진하던 고니시 왜군부대는 8월 5일에 구례에 들어왔으니 하루차로 엇갈려 하늘은 역시 이순신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지금까지 간략하나마 인간 이순신의 행적과 사상을 되살펴 보았습니다. 인간 이순신, 그는 오직 공의가 지상의 선이요, 그러므로 나는 이 공의를 목숨걸고 지킨다는 한없이 단순한 생각으로 물 흐르듯 흔들림 없이 짧고 지순한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 긴박했던 명량해전에서 내린 그의 군령 필사즉생(必死即生)은 바로 그 자신의 일생의 좌우명이었던 셈입니다. 그 자신의 군령처럼 죽음으로서 공의를 지켜 영원한 민족의 참스승, 충무공 이순신으로 되살아나셔서 오늘의 우리를 간곡하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충무공 묘소(아산 어라산) 이순신의 명량군령 必死即生 必生即死 (아산 현충사)

주요 참고문헌

이충무공의 난중일기 - 이순신 지음, 이석호역, 집문당

이순신의 일기 - 박혜일의 3인, 서울대학교 출판부

충무공 이순신 - 조성도 지음, 연경문화사

임진장초 - 이순신 지음, 조성도역, 연경문화사

징비록 - 유성룡 지음, 김홍식 역, 서해문집

이순신 평전 - 김종대 지음, 지평

이순신의 짧은 생애 빛나는 삶 - 장학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조선왕조실록 - 박영규역, 들녘

거북선 - 김재근 지음, 정우사

다시쓰는 임진왜란사 - 조중화 지음, 학민사

소설 『임진왜란』 (7부작) - 김성한 지음 행림사

소설 『격류』 - 김경진, 안병도, 중앙 M&B

소설 『칼의 노래』 - 김훈, 생각의 나무